


SG워너비 '타임리스'

**6300일**




브레이브걸스 '롤린'

**1456일**




윤하 '사건의 지평선'

**1200일**

# 10년간 역주행 1위 21곡

### 지니뮤직 2016~25년 차트 분석

### SG워너비 '타임리스' 17년 가장 오래 걸려
### 윤하 '사건의 지평선' 47일 동안 최장 1위

발매 4년 만에 음원 차트 정상에 오른 브레이브걸스의 '롤린'과 2022년 최고 히트곡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두 곡 모두 공개 당시에는 차트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다가 뒤늦게 음악 팬들의 '입소문'을 타고 순위를 끌어올려 1위를 차지한 노래들이다.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 타이틀곡이 아닌데도 음악 팬들의 '선택'을 받아 차트 정상의 기쁨을 누리는 수록곡 재조명 사례도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15일 KT지니뮤직이 2016년부터 올해까지 10년에 걸쳐 '차트 역주행'으로 일간 1위를 기록한 노래를 집계했더니 총 21곡이었다. 발매 30일이 지난 시점에 차트 정상에 오른 경우를 '차트 역주행 1위'로 분류해 집계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따르면 2016년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 보려 해'(한동근), 2017년 '좋니'(윤종신)· '선물'(멜로망스)·'비행운'(문문), 2018년 '그날처럼'(장덕철)·'지나오다'(닐로)·'YOU'(멜로망스), 2019년 '옥탑방'(엔플라잉)·'2002'(앤 마리)·'사랑에 연습이 있었다면'(임재현), 2020년 '시작'(가호)·'다운타운 베이비'(블루)가 역주행으로 1위를 찍었다.

이후 2021년 '타임리스'(SG워너비)·'신호등'(이무진)·'스테이'(더 키드 라로이 & 저스틴 비버)·'롤린'(브레이브걸스)·'문득'(비오), 2022년 '사건의 지평선'(윤하), 2024년 '난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아이들)·'해피'(데이식스), 2025년 '드라우닝'(우즈)이 이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일간 차트 1위에 오르기까지 가장 긴 시간이 걸린 노래는 SG워너비의 '타임리스'로, 2004년 1월 출시 이후 2021년 4월 정상을 밟기까지 약 17년, 6300일이 걸렸다.

KT지니뮤직은 "이 노래는 2021년 MBC TV '놀면 뭐하니'로 재조명되면서 17년 만에 재차 인기곡으로 등극, 15일간 일간차트 1위를 점령했다"고 설명했다.

1위까지 두 번째로 오래 걸린 노래는 브레이브걸스의 대표곡 '롤린'으로 약 4년, 1456일이 소요됐다. 가장 오래 1위 자리를 지켜 '뒷심'을 보인 노래는 2022년 3월에 나온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으로 47일간 1위를 차지했다. 역주행 1위곡이 가장 많이 나온 해는 2021년으로 5곡에 달했다. 2023년에는 단 한 곡도 없었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초반부터 좋은 성적이 나온다면 가장 좋겠지만 첫 진입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예전처럼 실망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며 "노래가 좋다면 점점 순위가 올라가 오랜 기간 차트에 머물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흥미로운 점은 2024년 이후 역주행 1위 사례인 아이들의 '난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데이식스의 '해피', 우즈의 '드라우닝'은 모두 타이틀곡이 아닌 수록곡이라는 점이다. 이들 노래는 리릭(가사) 영상과 라이브 퍼포먼스 영상 등이 있을 뿐 그 흔한 뮤직비디오조차 없다. '난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는 일상을 소소하게 녹여낸 공감 가는 가사로 음악 팬들의 선택을 받았고, '해피'는 희망을 주는 메시지와 듣기 편한 멜로디가 장점으로 꼽혔다.

'드라우닝'은 군 복무 중인 우즈가 지난해 10월 KBS 2TV '불후의 명곡' 국군의 날 특집 방송에서 열창하는 모습이 유튜브에서 화제를 모으며 입소문을 탔다.

임희윤 대중음악 평론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국내 음원 차트가 '듣는 음악' 위주로 재편되는 소비 패턴 변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과거에는 뮤직비디오, TV 음악 무대, 댄스 챌린지 등이 음원 차트에서 효과를 발휘했지만 요즘 이들 콘텐츠는 틱톡·유튜브 등 '보는 음악'에 강한 플랫폼에서 주로 영향력을 끼친다. 전통적인 음원 플랫폼은 이와 반대로 '듣기 좋은' 노래가 강세를 보이며 감상 위주의 경향을 띤다"고 설명했다.

이들 세 곡은 비트보다는 멜로디가 강하고, 최근 큰 인기를 누리는 밴드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다는 공통점도 있다.

임 평론가는 "임팩트 있는 타이틀곡보다 멜로디가 경쟁력 있거나 매일 들어도 질리지 않는 수록곡이 도리어 강세를 보이는 경우도 나타나는 것"이라며 "호흡이 길고, 기승전결이 있고, 멜로디의 흐름이 뚜렷한 곡이 유리해졌다"고 말했다.

한 기획사 관계자 역시 "음악 소비층이 다양해지다 보니 기획사가 내세우는 타이틀곡보다 수록곡에서 '나만의 취향'을 발굴하고 즐기는 분이 많아졌다"며 "자기만의 킬링 파트를 찾아 들으며 '나만의 알고리즘'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했다.

가요 기획사들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수록곡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거나 숏폼 챌린지에 공을 들이는 분위기다. 이는 타이틀곡이 예상 외의 부진을 겪을 때를 대비한 든든한 '보험' 역할도 한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 연예인 악용 또 '노쇼'

### 거창서 강동원 영화팀 사칭
### 고가와인 등 사게 하고 잠적

경남에서 가수 남진 소속사 직원 사칭에 이어 배우 강동원의 출연 영화 제작진을 사칭해 식당 예약을 하면서 고가 와인 구매를 유도하고 연락을 끊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발생했다.

15일 거창군에 따르면 12일 거창읍 한 식당에 배우 강동원의 영화 촬영 제작진을 사칭한 한 남성이 전화를 걸었다.

이 남성은 단체 식사를 예약한 뒤 병당 300만 원 상당의 와인 2병을 자신이 지정한 특정 업체에서 구매 대행하도록 유도해 600만 원을 가로챘다.

이 남성은 식사 후 현장에서 결제하겠다며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고가 와인 구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식당 주인은 안내받은 업체에 600만 원을 결제했으나, 예약 당일 사기범은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도 두절됐다.

지역에서는 거창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강동원의 인연을 악용해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거창에서는 이달 들어 이와 같은 유사한 수법의 노쇼 사기 피해가 총 3건 접수됐다.

8일 창원에서도 유명 가수인 남진의 콘서트 뒤풀이 예약을 빙자한 노쇼 사기 행각이 발생하는 등 관련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거창군은 지역 자영업자들에게 사기 수법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 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예약을 빌미로 구매 대행 등을 요구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크니 비슷한 전화가 온다면 군청과 경찰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BTS 진, 美 '지미 팰런쇼' 6개월 만 재출연

그룹 방탄소년단(BTS) 진이 미국 NBC 유명 TV 프로그램 '지미 팰런쇼'에 다시 출연한다.

15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진은 22일 방영되는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팰런'에서 신곡 '돈트 세이 유 러브 미' 무대를 선보인다.

'돈트 세이 유 러브 미'는 진이 16일 발매하는 두 번째 미니앨범 '에코'의 타이틀곡이다.

지미 팰런쇼는 전날 공식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진의 출연을 예고하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지미 팰런이 진의 신곡 티저를 감상하는 모습과 진이 목소리로 방송 출연을 예고하는 장면이 담겼다.

진이 지미 팰런쇼에 출연하는 것은 약 6개월 만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지미 팰런쇼에 출연해 '러닝 와일드' 무대를 선보였다.

진은 23일 뉴욕에서 1000명의 팬과 함께하는 이벤트 '하이-석진'을 개최한다.

# 아이유 8년 만에 리메이크 앨범

### 27일 신보 '꽃갈피 셋' 발표




가수 아이유가 '가을 아침' '너의 의미'를 잇는 새로운 리메이크곡을 발표한다.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아이유가 27일 오후 6시 리메이크 앨범 '꽃갈피 셋'을 발매한다고 15일 밝혔다.

'꽃갈피'는 아이유가 가요 명곡을 새롭게 해석해 들려주는 리메이크 프로젝트다. 아이유는 2014년 '꽃갈피'와 2017년 '꽃갈피 둘' 이후 약 8년 만에 '꽃갈피' 앨범을 내놓는다.

소속사가 공개한 앨범 커버에는 아이유가 오래된 공중전화에 기대어 카메라를 응시하는 모습이 담겼다.

앨범의 트랙 리스트는 추후 공개된다.

아이유는 지난해 상암월드컵경기장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고,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 출연하는 등 가수이자 배우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